



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

물아일체의 경지

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

혼탁한 세상에서 떨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

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

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

단풍, 계절적 배경 -가을 화자의 정서

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맞이라

풍류

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

세속적 가치를 좇는 사람들, 화자와 대조

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

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

허유와 소부의 고사 인용

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

세속적 가치를 해진 신에 비유, 세속적 가치에 초연함

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--> 연못에 달이 비치는 모습 제시

맑으면 갯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

마음가짐의 좋고 나쁨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,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

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(淸濁)을 모르래라

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맑은지 흐린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살고 있음

성 격 : 자연친화적, 탈속적

주 제 :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는 편안함.

해 설

제목 그대로 6수로 된 시조이지만 현재는 4수(四首)만 남아 있다.

장육당 이별은 익재 이제현의 후손으로 제주와 명성이 뛰어났지만,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.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(隱逸之士)의 정신을 지향했다. 이 작품은 세상의 명예와 이욕에서 벗어나 초연한 태도로 은둔 생활을 하며 자연을 지향하는 마음이나,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질책 등의 복합적인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.

